

## ‘정부와 민간, 함께하는 자살예방의 길’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네이버(주)(대외/ESG 정책대표 채선주)는 9월 15일(금) 14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와 네이버(주)가 자살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사회 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살 예방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네이버(주)가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이버(주)는 네이버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살예방 캠페인에 협조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차단 강화와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 개발,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홍보·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 라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네이버 채선주 대외/ESG정책 대표는 “생명존중문화라는 엄중하게 다가오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가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의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있게 해주신 이용자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두리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4-202-3891)

